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시편 68:1-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편 68편은 군사적 승리를 노래한 시로 7-18절은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Yahweh, Yah, Elohim, El, Adonai, Shaddai, 그리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4절),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5절), 시내산의 하나님(8절),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19절), 다스리시는 하나님(20절), 나의 하나님 나의 왕(24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고 웅장한 소리를 내시는 이(33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본 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삼하 6장).

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민수기 10:25-36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궤가 떠날 때에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어 일어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선언적인 문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되는데 하나님은 악한 원수들을 흠으시고(1-2절), 악한 자들과 버림 받은 자들을 돌보신다(5-6절)는 것입니다.

2.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가나안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어 일어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어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람 앞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불 앞에 초처럼 녹아버립니다(1-2절). 하나님을 미워하던 악인들이 주 앞에서 자취도 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들은 즐겁고 흥겨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 뛰놀게 됩니다(3-4절). 그들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시며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갈진 자를 이끌어내어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역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배 한 척 없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시내산도 진동할 놀라운 기사였고(7-8절), 발을 일군 적도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은 것은 흠족한 비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9-10절).

3. 왕들을 누른 승리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12절).

11-14절은 가나안 정복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왕과 군대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전쟁 없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정복이 얼마나 쉬운지 대지 위에 눈이 날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14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둘기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열왕의 군대로부터 무수히 침범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들을 패배시켰고 이스라엘 병사는 물론 집에 있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지키던 목자들까지도 은빛 날개에 금빛 깃으로 번쩍이는 비둘기 형상이었으니 뉘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겠습니까? 전능왕 하나님이 열왕들을 흠으셨을 때의 광경은 살몬산에 눈이 날림 같았다고 했습니다(14절). 바람에 눈이 날아가듯 적군이 패주했고 살몬산에 눈이 내리자마자 녹아버리듯 적병은 소멸했습니다.

4.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의 최고봉인 바산을 제쳐놓으시고 나지 막한 시온산에 거처를 삼으신 것은 열강 중에서 유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선전하셨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15-18절). 오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의 살몬산에 조용히 내린 눈은 바산의 높고 험한 산맥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것입니다. 바산 산맥의 북쪽 줄기에 있는 헬몬산은 해발 9천 피트로 살몬과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나 바산의 높이와는 비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들

이 낮은 시온산을 시기했습니다(16절).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약하고 낮은 것을 택하시어 당신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며 이세의 아들 중 가장 작고 낮은 자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17절). 이 말씀은 본편 전반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성소에 들어가심을 묘사한 것으로 인간의 군대가 아닌 천사와 천군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7-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시대에 언약궤가 시온산에 도착한 것을 언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하늘 장막으로 승천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68편에서 묘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을 위한 것이고, 시편 68편은 에베소서를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죄인 된 우리를 끌어내셨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2007 열린바자

9월13일(목) 오전 10시 개장 - 쿠폰사용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2007 열린바자가 13일(목) 오전10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14일(금)까지 계속된다.

이번 열린바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 중인 사랑의 집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여는 것으로 바자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집 건립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바자위원회는 지난주 주침을 통해 점포 위치를 정한바 있다. 오늘은 각 교구별로 판매하게

될 상품을 아래에 게재한다.

이번 바자에도 각 교구마다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재물을 드러 풍성하게 준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바자는 **현금대신 쿠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서울교회 위임목사이신 이종윤 목사의 저서를 구입한 성도들에게 친필로 사인을 해드리는 순서도 마련하여 더욱 알차고 아름다운 바자로 준비되고 있다.

각 교구별로 판매하게 될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교구: 8층 식당, 인견이불(명품엔틱가구), 건강선물세트, RGM 여성정장
- 2교구: 오징어, 고구마 튀김, 소금, 김, 약세사리, 티셔츠, 가전제품
- 3교구: 사과일 주스, 약세사리(삼화산업), 핸드백, 스프리스
- 4교구: 배, 메론,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절임배추(주문), 핸드백, 참고서, 남성의류(가나안통상), 여성의류(가방, 핸드백)
- 5교구: 창란젓, 새우젓, 조개젓, 멸치액젓, 고추장, 된장, 간장, 비누, 머리염색약, 구두(바이네트), 숙녀복(앙스모드, 센존), 여성의류(박혜정)
- 6교구: 해물과전, 홍삼드링크류, 흡소핑 의류
- 7교구: 봉평반대떡, 짜파게티, 다시마, 조미김, 강경젓갈, 강원도 찰옥수수, 단호박, 황토숙육, 란제리, 스키복
- 8교구: 송편, 청바지(신 인터내셔널), 헌옷, 골프용품(원퍼팅)
- 9교구: 사골, 여성정장(라스포사), 흡소핑 의류
- 10교구: 녹두전, 순창고추장, 된장, 장아찌 류, 칫솔, 일회용PE장갑, 올리브유
- 11교구: 동그랑땡, 식혜, 수정과, 커피, 아이스크림, 건어물선물세트, 여성의류(기증품), 담요(기증품), 스포츠센터, 짬뽕 입장권
- 12교구: 순대, 떡볶이, 오뎅, 김치, 솔잎식초, 혼합잡곡, 여성구두, 헌옷, 와이셔츠, 넥타이, TBJ 캐주얼, 블라우스
- 13교구: 삼각김밥, 묵국수, 닭갈비, 건어물(멸치, 다시마등), 여성화장품, 선물용품(CJ, 동원), 헌옷, 남성정장, 비데
- 14교구: 꿀, 굴비, 양파즙, 칫솔, 여성구두, 넥타이(사무엘), 스카프, 남자팬티, 헌옷
- 사랑부: 잡화(주몽학교), 남녀 캐주얼, 서적
- 디아스포라부: 장뇌삼, 오가피, 노가리, 북분자원액(북한산)
- 에바다부: 호떡
- 호산나학교: 참기름, 들기름, 문어, 여성의류(마담포라, 제이얼)
- 특관부: 고구마, 고구마순

추석 연휴 성경통독사경회

신약성경 전권을 범위로

9월 24일(월) 08:00 - 25일(화) 12:00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추석 연휴기간 중 성경봉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기위한 성경통독 사경회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24일(월) 오전 8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시작된다.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며 회비는 1만원(식비, 간식비)으로 16일(주)부터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성경통독범위는 신약성경 전체(4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이며 서울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진행방침 및 요령은 매 교시 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하고, 낭독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눈으로만 글씨를 보

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또한 성경전체의 흐름(맥)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며, 손으로 색연필을 들고 은혜 받은 구절에 줄을 치거나 각종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더욱 좋다.(예) 주황색: 경의 말씀(회개), 빨강색: 약속의 말씀, 파랑색: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추석 구제 실시

우리교회는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를 준비하는 한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각 교구에 속한 성도들 중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주몽학교, 나사로의 집,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담당 교역자들을 통하여 금일봉 씌을 전하며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다.

주 안에서 형제 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서로 돌아보며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7 성경암송대회

범위: 디모데 후서

10월21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6일(금) 본선 - 602호에서

2007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는 10월21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예선에 통과된 성도들은 10월26일(금) 602호에 모여 본선을 갖는다.

성경암송대회의 본선은 (개역개정판) 디모데 후서 전장을 범위로 한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9월 1차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8교구)강희자 권사, (9교구)전용순 권사
 8독: (12교구)김경칠 장로
 2독: (4교구)유복달 권사 (8교구) 김대호 장로 남순덕 권사 (10교구)최무순 권사 (11교구)노영숙 권사 (12교구)임상현 장로 (14교구)최죽희 권사
 1독: (1교구)김정순 집사, 류순임 권사, 전행자 권사,한선현 장로, 홍정환 성도
 (2교구)이윤희 권사
 (3교구)김명옥 권사, 남태순 권사, 박분옥 집사, 박이선 집사, 송행희 성도, 하인선 집사, 한은미 집사
 (4교구) 김숙연 집사
 (5교구)김남옥 집사, 홍혜련 성도, 홍혜란 성도
 (6교구)박정은 성도
 (8교구)한경석 권사, 홍성주 장로
 (9교구)김찬영 집사, 박순단 집사, 윤봉준 장로
 (10교구)김용숙 권사, 정현숙 권사
 (11교구)서명철 목사
 (12교구)서희숙 권사
 (13교구)김명희 집사, 김소애 성도, 김수련 성도, 박길수 집사, 박동희 집사, 신성균 성도, 엄정순 권사
 (14교구)김옥순 집사, 박정임 집사, 서수녀 집사 (대학부)박선영, 박지영, 임현우, 한민아, 한선아, 황주원
 (에바다부)신태봉

2007 바자위원장의 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랑,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자!



박두호 장로 (2007 바자 위원장)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 속에서 금년에도 이웃사랑·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린바자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복음에 유익이 되는 2007 사랑의 바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잘 것 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하시므로 나누어 줄 때 많은 사람이 먹고 열 두 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가 드리지며,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물질이 바쳐질 때 풍성한 바자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옥합을 드려 점포마다 좋은 물품들과 기증품들이 출품되어 서로 나누고 베풀 때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사랑의 집이 아름답게 건립될 줄로 믿습니다.

*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만 이웃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2007 열린바자는 온 교회가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지고 바쳐져 한마음으로 실천하는 바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4개 점포와 부서별과 특관점포, 점포장님이 앞장서

교구와 다락방과 부서원들을 격려하시고 판매부장, 총무부장님들과 모두가 한마음을 이루고 본부 부서장 실행위원들이 점포를 도우며 든든한 심부름꾼으로 협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자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번 2007년 바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現金)대신 쿠폰을 사용합니다. 교회학교와 다락방, 이웃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교구점포나 위탁점포들이 신뢰로 거래와 정신을 투명하게 하며, 쿠폰 선(先)판매로 일정수준의 매출을 이루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저서 사인 판매 행사와 아름다운 음악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과 이웃들이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직접 목사님이 사인하신 책을 소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고 서울교회 사랑부, 예배다부, 디아스포라부, 호산나 학교 지체들을 동참케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바자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여! 2007년 바자에 적극적 참여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열린바자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되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만민에게 전도

아파트 전도 특별 세미나를 마치고



은기장 집사(70인전도대 대장)

신도시의 등장·재개발 등 도시의 아파트화의 가속으로 주거환경의 급변화속에서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없어 아파트 전도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교회성장과 침체위기의 기로에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거환경에 걸맞은 전도전략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강남노회 주최로 열린 아파트 특별전도 세미나(강사: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를 통해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 하에 몇 가지 아파트 전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도에 임하기 전에 아파트 주변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목적을 전교인이 공유해야 하고 전도계획, 전도전략수립, 구체적 방법, 전도훈련까지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전도 체질변화를 강조했다.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져 태신자 만들기 운동, 기도운동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도간증집회, 아파트전도위원회 구성, 아파트 관리책임자와 관계형성 등 아파트 전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제시했다.

둘째, 전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역동적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통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로의 체질변화를 제시했다.

셋째, 전도학교와 전도 이벤트를 통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도록 하여 전도 훈련자 및 전도체험자들을 통한 모든 성도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체질로 변화를 제시했다.

넷째, 새로이 맞는 새가족에게 십자가 정신을 통한 기존성도 중심이 아니라 새가족 등록, 환영, 양육 시스템까지 새가족 중심으로 변형시켜 새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전도사항에 정보공유를 하여 일체감으로 전도하기에 힘쓰며, 새신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모두 함께 사랑의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 발전되는 서울교회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없는 주일을 위하여...

다음세대를 위하여...

이규민 집사 (3교구, 동아일보 大記者)

인간에게는 생존의 본능과 자기보호의 본능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어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같은 본능이 이기주의로만 흘러 오히려 자식 세대를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이들의 IQ를 30점 올리는 의학기술이 개발됐다면 아마 많은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시술을 받게 할 테지만 다음 세대가 사실 물과 공기를 지켜줘 좋은 생태계를 남겨주자는 공동의 목표에는 인색한 것이 그 사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의 생존환경을 강탈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함으로써 이미 지난여름, 우리는 일상에서도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무섭게 실감했다. 단

하루만 자동차가 안 다녀도 도시의 열이 당장 3도 이상 내려간다는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9도일 때와 32도일 때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가. 지구상에는 지혜의 눈으로 미래까지 내다보는 현명한 분에서부터 무지몽매한 사람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인간이 모두 예수그리스도처럼 성자가 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의 말씀에 부응해 세상을 깨우치는 데 앞장 설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교회의 차인타기 운동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직무라고 하겠다.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이 텅 빌 수만 있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클 것이다. 이 운동이 기독교계 전체로 확산되고 전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민에게 전도-한기총 공동선언문 채택

한기총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되다

-한국교회 63개 교단과 연합기관의 나침반 될 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7일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89년 4월에 고(故)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KNCC(한국교회협의회)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들의 연합기구 창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기총 창립준비위원회(대표회장 한경직)를 조직하고 그해 12월에 신구약 성경으로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교단과

연합기관의 협력기관으로 한기총이 창립되었다. 지난 17년 동안 한기총은 신학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63개 교단 연합체로 주어진 과제를 풀기위한 연합운동을 이어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은혜였다.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한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작성하기로 하고 지난 8월9일 '한기총의 신학적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신학세미나를 거쳐 이종윤 목

사가 작성 제시한 공동선언문 채택한 바 있다. 이 선언문을 신학위원회의 임원회와 신학위원회에서 각각 두 차례 심도 있게 토의를 거쳐 65명의 신학위원 전원 동의를 얻어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참석자 전원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들이 공동선언문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공동선언문은 총 15장으로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능력, 교회의 사명, 전도와 문화, 교육과 지도력,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연합과 협력, 전도자의 겸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성하고 서론과 맺는 말로 되어 있다.

향후 한기총의 모든 행보는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국교회의 방향 설정에 나침반 역할을 할 공동선언문을 우리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크게 환영한다.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들이
공동선언문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난 것**

차 없는 주일 캠페인

10월7일 차 없는 주일로 선포

지금 지구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온난화가 되어 가고, 이로 인한 이상 기후로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지구의 아픔을 덜고자 '차 없는 주일'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며 지구 온난화 현상은 빠르게 가속화 하고 있다. 공기오염으로 사막은 더욱 넓어지고, 일부 지방은 강수량이 늘어나 홍수를 일으킨다.

또 오존층의 약화는 피부암, 면역력 감퇴 등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며 산성비 속의 황산과 질산 성분을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매연, 화학물질, 중금속, 다.

방사성물질도 사람과 자연에 큰 피해를 준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도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교회는 10월7일(주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키플'을 실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운동에 동참한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지구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 지신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저녁 특별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독창과 중창 순서로 준비된다.

오늘 출연자는 권소라, 정다운, 박혜진 선생(소프라노) 3명으로 거룩한 성(권소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정다운, 박혜진)의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9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참여한다. 김광신, 오정수 장로도 총대로 참여한다. 13일(목) 한국기독교학술원 임원회에 참석한다.
- 차도훈 집사(14교구)는 교회 사무국장직을 사임. 유태서 집사(8교구)가 대행한다.
- 이사: 차영도 집사 정미연 집사 가정, 동작구 상도5동 삼환나우빌@102-201
신봉하 집사 전숙향 집사 가정,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38-10
- 준공: 신봉하 집사 전숙향 집사, (주) 하이크리닝 화성지사 공장준공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356-10 T. 031-892-0303
- 개업: (1교구) 공명례 성도, 법무사 사무소 광진구 구의1동 243-19 T. 3436-3996
(5교구)정해영 성도, 온라인 증권정보업체 "고래닷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12, 502-1호
- 득녀: (14교구) 강충구 성도 김주연 집사 가정
- 수상: (1교구) 손영호 집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관련 역학조사 기여 공로로 농림부장관상 수상
- 주간식당 봉사: 한나전도회(9.9) 당회원(9.16)
- 금주의 식사: 왕경래 장로 김정희 권사 가정 (왕경래 장로 생신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3. 다락방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하도록
4. 이웃사랑·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5.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